

“군산공장 경영정상화 위해 최선 다하겠다”

한국지엠 카허 카셈 신임 사장 군산시 방문, 경영설명회·간담회 가져

한국지엠의 카허 카셈(Kaher Kazem) 신임 사장이 28일 군산시장을 방문해 한국지엠 군산공장 경영정상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카허 카셈 시장은 이날 군산공장에서 경영설명회를 마친 후 시청에서 문동신 군산시장, 김승일 전북도행정부지사, 박정희 군산시의회 의장과 가진 간담회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김승일 행정부지사는 간담회에서 “상호 발전의 동반자인 GM과 전라북도나 한국지엠 군산공장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응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최근 한국지엠 철수설이 제기되면서 지역 주민들이 차량 구매를 망설이는 등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회사 측의 명확한 입장을 밝혀줄 것”을 요청했다.

문동신 시장은 “최근 철수설 등 대

내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한국지엠 사장으로 취임하여 노고가 많으신 카셈 시장의 군산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이날을 계기로 회사 측과 지자체, 지역주민이 하나 되어 한국지엠 정상화 의지를 다져 군산과 전북경제 더 나아가 한국경제를 활기있게 부흥시킬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만들어가자”고 말했다.

특히 문 시장은 “군산공장은 최신 단위공정 시설과 주행시험장등을 갖춘 자동차 공장으로서 반경 2km 이내에 핵심 부품생산단지와 자동차 수출 전용산하의 접점이 가능한 전용부두를 보유하고 있는 등 최적의 물류여건을 갖추고 있다”며 “시에서도 지엠차 구매운동 등 적극적인 행정지원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만큼 군산공장에 대한 신규물량 배정 등 투자지원을 확대해 달라”고 강력히 건의했다.

박정희 군산시의회 의장은 군산공장 준중형 라인에 맞는 전기자동차 등의 물량배정과 기존 울란도 차량의 생산연장을 건의했다.

이어 “전북도와 군산시는 한국지엠 차량판매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 중”이라며 “앞으로도 지엠 군산공장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다각적인 방식으로 판매운동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한국지엠 측의 요구사항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검토에 나설 것”임을 밝혔다.

이에 카허 카셈 시장은 “그동안 전북도와 군산시에서 한국지엠에 대해 보내준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깊은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며 “건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회사 내부 관계자들과 함께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모두가 바라는 한국지엠 경영정상화 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지엠 군산공장은 2013년 GM의 쉐보레 브랜드 유럽 철수 결정 이후 국내 4개 공장 가운데 생산물량이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 지역사회 위기가 깊어지고 있는 상황이며, 경영악화와 임단협 미체결, 지속적인 철수설로 인해 군산공장을 포함한 130여개 협력업체와 종사하는 1만 1,000여명의 근로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편, 2007년 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 한국지엠차 구매 운동을 추진해온 군산시는 올해도 한국지엠차 전 차종을 시정 및 도내 지자체와 관내 대학교 서천군에 전시, 홍보중이며, 군산예술의 전당 야외광장에서 시민 3,000여명과 함께 내 고장 생산품 판매추진 결의대회를 갖고 시가행진을 벌이는 등 친기업 행정을 모토로 내 고장 생산품 애용 운동을 활발히 전개해 시선을 끌고 있다.

/군산=김관곤 기자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성화 내달 2일 익산시 밝힌다

오는 2월에 개막하는 2018 평창동계올림픽의 성화가 28일 전북에 입성할 가운데 오는 12월 2일에는 전주출발하여 유네스코 세계유산도시 익산시에 도착해 지역 곳곳을 밝힌다.

익산시 성화 봉송은 총 5개구간으로 오전 11시 43분 동산동 영진철물앞에서 출발하여 시내 주요 곳곳을 돌아 오후 6시 30분경 익산역에 도착하는 일정으로 총 25.3km 봉송구간을 주자당 200m씩 달리는 릴레이 방식으로 진행된다.

익산시 성화봉송 주자는 김철모 부시장을 비롯해 체육인, 기업인, 사회단체 대표 등 익산시 추천과 조직위 선발전 등 총 8명의 다양한 계층의 주자들이 참여하게 된다.

달일 저녁 익산역 광장에서는 ‘천년의 빛, 천년의 소리’를 주제로 익산시립예술단의 축하행사가 펼쳐질 예정이다.

익산에서는 왕궁리 유적지, 보석박물관, 미륵사지 등 3곳이 선정돼 메인 봉송단의 휴식시간에 이색 봉송이 이루어진다.

성화봉송 구간의 주자 안전과 교통질서를 위해 성화봉송 전일 경찰서, 조직위 관계자 등 유관기관과의 합동 사전 점검도 실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성공적이고 안전한 성화봉송을 위해 시민들에게 성화봉송로변 차량주·정차 금지 및 교통봉쇄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익산=정양원 기자

군산2 국가산업단지 유수지 국내 최대 ‘수상 태양광발전소’ 착공

총사업비 430억원 투자... 18.7MW 규모

최근 정부의 탈원전 석탄화력 감축 정책기조에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군산시는 28일 군산2 국가산업단지 유수지에 위치하게 될 국내 최대 ‘수상 태양광발전소’의 착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착공식 현장에는 송하진 전북도지사, 문동신 군산시장,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정책담당관, 박정희 군산시의장, 박시(쥘피앤디솔라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과보고 및 유공자 포상, 착공식 세리머니 등의 행사가 진행되었다.

시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민간자본금으로 군산2 국가산업단지 유수지에 총사업비 430억원을 투자하여 지난 28일 18.7MW 규모의 수상태양광 발전소 착공식에 이어 내년 6월말 공사를 마무리하고 상업 발전에 들어갈 예정이다.

그간 군산시는 사업추진에 규제로 작용하던 산업자원통신부 지침에 대한 적극적인 개선 요구로 RE-C7중치를 단초1.0에서 1.5로 상향 개정을 이끌어내는 등 적극 행정을 통해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노력해왔다.

유수지란 집중강우로 인해 급증하는 저지대의 배수량을 조절하고 하류지

역의 최대 유량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이용되는 특정지점을 말하는 것으로, 이번 수상태양광발전소가 들어설 유수지는 그 본래의 기능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수면에 발전소를 건설함으로써 국토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지역주민의 환경권 등을 최대한 보호할 수 있어 관계자들로부터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또한 지난 4월 사업 시행자인 쥘피앤디솔라(SFC)와 MOU를 체결했던 국내 최대 부유체 제조업체인 스킵트라(쥘)는 2018년부터 군산2 국가산업단지 총 사업비 500억원을 투자하여 2만평 규모의 자동화 공장을 신축할 예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시 관계자는 “수상태양광은 부력을 이용해 태양광 집열판을 설치하여 오전과 오후 수면에 비치는 난반사까지 이용해 효율을 극대화함으로써 기존 발전시설보다 높은 효과를 갖는다”며 “부지난을 겪고 있는 우리나라 태양광 발전의 획기적인 이정표가 될 사업인 만큼 시에서도 최대한의 행정지원을 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쥘피앤디솔라는 태양광 발전소 인근에 수상태양광 발전소와 주변 풍

력발전단지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LED 경관조명을 설치하고 홍보관을 건립함으로써 수상태양광과 풍력발전단지의 견학코스를 기존 관광코스와 연계해 새로운 관광 명소로 성장할 수 있는 지역 랜드마크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군산=김관곤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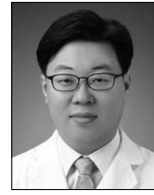
코레일 전북본부-충남본부 상호 교차 안전점검 시행

코레일 전북본부와 대전충남본부는 오는 30일까지 더 안전한 철도를 만들기 위한 상호 교차 안전점검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차점검은 역, 차량, 시설 전문가의 전문가가 35명이 참여하여 사고예방을 위한 상호 교차 안전점검을 지역간 거리로 인해 공유하지 못했던 종합적으로 들여다보고 안전 취약요인을 발굴·개선하여 효율적 안전관리와 열차 안전운행 확보에 기여하고자 시행된다. 특히, 교차점검을 통해 지역간 거리로 인해 공유하지 못했던 안전관리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상대방 부분에 대한 객관적인 안전관리실태를 점검하고 개선방안까지 제시함으로써 안전뿐만 아니라 양 본부간 협력적 유대관계 개선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익산=정양원 기자

원광대병원 마취통증의학과 김연동 교수 통증질환 관련 진찰 검사법 서적 출간



원광대학교병원 마취통증의학과 김연동 교수가 대표 역자로 참여하여 통증 질환과 관련된 전문 의료진을 위한 통증치료를 위한 알기 쉬운 근골격계 이학적 검사법-근거중심진찰법 (도서출판 메디안북)을 번역, 출판하였다.

이번 역서는 대한통증학회 초음파교육위원회 위원인 김세영(경북의대), 김형태(예수병원), 변경조(부산의대) 교수들이 함께 참여하여 통증 치료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이학적 검사법들에 대한 체계적인 설명과 각각의 검사방법이 갖는 의학적 근거들을 문헌고찰 및 동영상들과 함께 소개한 서적으로 통증치료 전문의사들의 교육 지침서이다.

김연동 교수는 이번 출간되는 서적을 통해 각종 통증질환으로 인해 고생하는 많은 환자들이 의료진과의 진료과정에서 자신의 증상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고 이를 토대로 전문 의료진의 이학적 검사와 영상 검사등을 통해 정확한 통증 질환의 원인 규명과 치료에 이를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개개인의 통증은 여러 증상들이 다양하게 나타나는 바에 대한 면밀한 병력 청취와 환자 개개인의 증상에 맞는 다양한 진단방법 및 치료방법을 제시할 수 있는 통증 치료 전문 의료진과의 소통이 가장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통증의학은 우리 몸에서 보내는 여러 가지 이상 신호들이 ‘통증’이라는 증상으로 표현되는데 이에 대한 원인을 규명하고 약물요법, 주사요법, 고주파등을 포함한 비수술적 시술요법들을 이용하여 치료하는 학문이다.

대표 역자 원광대학교병원 마취통증의학과 김연동 교수는 전북의대를 졸업, 동대학원 의학석,박사 학위 취득후 일본 쉐넨도 대학 통증의학과, NIT 관동체신병원 통증클리닉에서 임상연수했다.

현재 원광대학교병원 통증의학과 통증치료 담당 교수로 근무중이며, 대한통증학회 학술위원, 교육위원, 초음파 연구위원회 위원장 및 대한척추통증학회 홍보이사, 미국 통증학회 정회원 및 국제 중재적 통증치료 전문가(IFPP)로 활동하고 있다.

/익산=정양원 기자

군산 곳곳 어려운 이웃 희망나눔 손길 줄이어

세아베스텔·단석산업 이웃돕기성금품 기탁

(주)세아베스텔(대표이사 윤기수)과 (주)단석산업(회장 한구재)은 지난 28일 동절기 어려운 이웃이 따뜻한 겨울을 지낼 수 있도록 1,600만원 상당의 겨울용품과 성금 5,000만원을 각각 군산시에 전달했다.

(주)세아베스텔은 해마다 겨울이면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겨울용품을 후원해 왔으며, 이번 기탁된 성품(전기요, 겨울이불)은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동절기 추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홀몸어르신 및 저소득가정 등 겨울난방 취약가구에 전달될 예정이다.

기탁식에 참석한 김태완 노조위원장은 “세아베스텔 임직원들의 정성으로 물품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겨울나기 용품을 후원할 수 있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세아베스텔은 지난 2012년부터 군산시와 ‘희망나눔 지역복지’ 협약을 맺어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으며, 전 임직원들이 사랑의 희망계좌 갖기 운동과 급여결산 모으기 캠페인 등을 통해 매월 급여의 일정액을 적립하여 지역사회의 위기가 되고 있다.

같은 날 (주)단석산업(회장 한구재)은 주위의 어려운 이웃에게 써 달라며 이웃돕기성금 5천만원을 군산시에 기탁했다.

(주)단석산업은 1965년 설립되어 명실상부한 친환경 부품소재 선도기업으로 정밀화학 소재, 바이오에너지, 비철금속 3대사업 영역에 탄탄한 기반을 구축하고 신료, 소용 열정의 3대 핵심가치를 가지고 전 직원이 모든 업무활동의 원칙과 기준으로 삼아 인류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는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이날 기탁식에 참석한 한구재 회장은 “단석산업은 지난 반세기동안 기업은 영원히 지속, 발전하면서 인류사회에 공헌하여야 한다는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왔다”며 “오늘 우리의 나눔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큰 위로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군산=김관곤 기자

고맙습니다! 적십자회비

나눔이 희망입니다.

여러분이 참여해 주신 적십자회비는
경주지진, 태풍 차바, 화재 등 각종 재난을 당한
이재민과 소외된 이웃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올해도 적십자회비로 희망을 전하세요.

금융기관

가상계좌

인터넷

전화

편의점

신용카드 포인트

QR코드

홈페이지 www.redcross.or.kr
정기후원-긴급지원 문의 1577-8179

홍보대사 안재욱